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양

심

디모데전서 1:19 절 정인수 목사

곧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과전을 당했음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감사하여야 되겠음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의 선물은 양심인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구리 마음속에서 반짝거리는 등불과 같음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밝히서 분별하여 줍니다 선을 행할때는 칭찬을 하여줌과 동시에 마음이 쾌활함과 기쁨을 주고 악을 행할때는 책망을 하는 동시에 마음이 불쾌함을 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양심은 마음에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생은 먼저 자기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밝히 들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소리보다 자기의 양심에 소리를 잘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존경할것 입니다 양심은 형체가 없음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형체는 없으시나 그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럼으로 양심만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우리의 실생활에 나타나는것이 양심에 힘이 없는 생활을 하게됩니다 사도행전 24장16절에

힘써 하나님을 대하나 사람을 대하나 항상 힘이 없는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디모데 전서4장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火印)을 가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마음속에서 항상 속삭거리는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생들은 자유라고 하여서 그 귀한 양심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소리를 무시하고서 육적 욕망만 채우기 위하여서 자행자지(自行自止)하는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도 인정은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한도가있는 줄로 압니다 그한도를 침범할때는 곧 범죄의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로 위에서 달리는 기차는 그 선로위에서 만이 자유로 탈릴수가 있지 만일에 탈선할 시는 파괴의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기독교인들도 자유라 하면서 지나치는 자유와 행동이 여실리 나타날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이 옳다고 하니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물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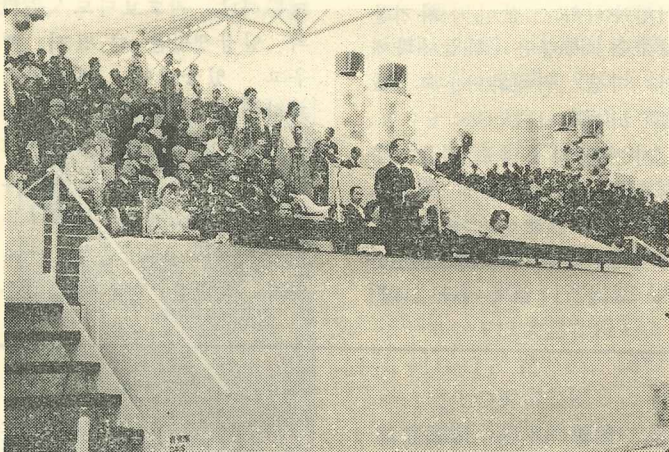
공정하게 공판을 내리실 것이오나 오늘 현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또는 타인에게 정신적 도덕적 물질적 면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주는 것은 좋지 못한 일리오면 따라서 이것은 양심에 어긋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인줄로 압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지혜와 또는 큰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 고 합지라도 타인에게 덕을 기치지 못할때는 양심에 어긋난 일리요 그 모든 공력이 다 허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23장1절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平野教會)

<만박 한국의 날>

만박을 한국 일색으로



만박도 시작한지 두달반이 지나 일본전국은 마쓰코미를 비롯하여 만박에 이목을 끌고있다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인류의 조화와 진보」라는 제목에 일단 그눈과 마음에 모순을 느끼게하고있다 제목은 조화 평등이라하지마는 만드려 놓은 파비리온의 크고 작은 것으로 호화로운것과 빈약한것으로 큰나라와 작

은 나라 선진국과후진국 존경과 멸시의 감정을 저절로 이르게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오직 한가지 만박의 본래에 돌아가게 하하것은 「국제날」이다 그날만은 만박구석에 별로 돌아보지않는 작은 나라의 파비리온이 만박중앙에 크게 자리를 잡고 만박 전체가 그나라 그민족을 큰나라와 평등의 자

리에서 이해하고 추앙하고 눈을 뜨게하는 날이다

깊은 이해가 서로의 조화를 가져오게한다 5월18일은 만박의 구석구석까지 태극기를 휘날리고 재일동포는 다루어 민족옷을 입고 만박을 한국일색으로 화하였다 선진국이라고도 못하고 후진국이라고도 못하는 한국 자랑할것도 없고 비굴해질것도 없고 담담한 마음으로 한국 그대로 눈치볼것 없이 꾸밀것도 없이 가장할것도 없이 민족의문화 를기뻐하고 조국의 존재를 극히 귀엽게 생각 하면서 국가대표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맞이하여이낙선상공부장관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할만한 명사의 참석하게 대한민국을 세계열방의 一원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오히려 겸비하게 그리고 극히 아름답게 세워졌다 참기쁘고 거룩하게 느껴질정도로 고귀하게 느껴진 하로였었다 어떤 나라와 같이 악착한 침략의 역사를 꾸며오다가 아직도 강한것을 자랑하면서 경제력발전을 시위하는 것으로 경제침략의 야망을 속깊이 품어있는 위선에 빠지지않고 스스로의 자주자존과 같이 남의 자주자존을 진지한윤리로 「테-마」그대로 「보다 깊은 이해와 우정」을 그모습에 그생각에 그감정에 넘치게한 하로였었다 한국민족이야말로 다른나라를 해하지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생존권을 다시 없는 생명으로 지키고 깊은 한국문화를 길러내고 피와 땀으로서 조국국토에 기나긴 역사를 짊어낸 민족이다 EXPO광장에 벌린 춤 노래 음악의 하나하나는 민족의 소박한 감정에서 민족의 비원을 사무쳐 한국민족만이 가지는 향내나는 인간성을 마음껏 벌려놓았다 한없이 평화롭고 잘못된 애정과 지성의 풍부하고도 예민함을 차고넘치게하였다 보는사람 듣는사람 내나라 합것 없이 인간정서를 흔들어버린 화려하고 흥이나게한 것이었다 재일한국인에게 조국과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게 귀여워하게 하며 사모하게한 날은 없었다 일본사회구석에 스며

버린것 같이 가늘하게 살아온 한국인이 가슴터지는 듯한 기쁨과 자람에 넘친 날이 었었다 한국민족의 빛난역사를 말없이 만박을 찾아온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상깊게 이해시킨날이 었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뜨거운 우정의 손으로 손잡은 날이 었었다 그것이 단하로만으로 끝치지않기를 삼가 기도하게된다 바라기는 옛한국만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을 노래 춤 음악으로EXPO에 보여주었으면 하는것이다 6, 25동탄에서 얼마나 용기있게 풍성한 힘과 지혜로 일어섰다는것을 오늘의 한국문화를 사회복지 교육 정신문명으로서 이트킨 기독교를 대합창으로 들려주었으면 하여마지않았다

關西地方 신도대회

會長에 關重三

지난 5월17일 오후3시부터 관서지방신도회의 제7회 정기대회가 大阪北部教會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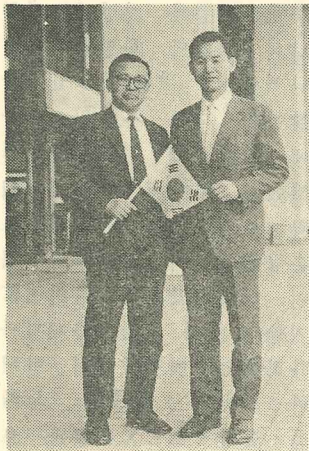
신년도의 임원개선과 활동사업을 결정하였다. 신년도의 주제는 「70년대에 사는 신도」라 하고 부제를 「우리의 사회참여」로서 활발한 활동을 제시할 다짐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KCC센터 건립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신도회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능성을 크게하려 한다.

새로운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關重三 ▶부회장 全奎長 ▶서기 姜和益 ▶부서기 이윤규 ▶회계 金香模 ▶부회계 張又基 ▶총무 金仲泰 ▶協同 金吉雄 ▶研究委員長 金京秋 ▶研究委員 李愛信 洪邦憲 金仲泰 金吉雄 ▶財政委員長 李小龍 ▶財政委員 鄭生毛 金玉礼 金香模 張又基 ▶伝道部長 韓胤周 ▶伝道部員 李愛信 金鐘聲 鄭敬子 金福分 李昌雨 ▶職業部長 李正男 ▶職業部員 嚴道潤 康成男 金香模 張又基 金吉雄 全奎長 ▶公報部長 辺萬柱 ▶公報部員 金勇聖 ▶特別研究委員 尹宗銀 (성경) 金元治 (직업) 裴琪煥 (우리의 사회참여) 맥인도 (수양회)

—선교 10개년계획 시리즈—

단기 선교사로 두목사 부임



작년에 단기선교사로 모국에서 다섯목사님을 모시고 佐世保、岡山、桑名등지에 크게 성과를 얻은 개척전도사업으로서 계속 선교사를 모시려고 그간 수속중에 있었다가 4월15일 모국 감리교 김연호목사와 기장 홍효균목사 두분이 부임하시었다 김목사는 岡山로 홍목사는 桑名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삼개월동안 수고하시게되었다

김연호목사는 50세 강원도출신으로서 한국감리교회 동부연회에 소속하시고 춘천(春川) 중앙교회목사로 시무하시는데 금번 재일 60만구명에 간절함을 느끼시어서 감리교동부연회의정식과송으로 일본에 도입하신 한국기독교교에 중견전장한 목사시다 岡山에서 3개월간수고 하시는때 岡山은 작년에 감리교 최기석목사의 개척으로서 교회형성의 기초는 세워졌고 매주일 평균15명 모여예배를 지키고있다 현재 岡山교회의 예배당건설을위하여 기지를 구하기위해 노력중인바 모국감리교회가 우리

와의 깊은 유대로서 교회 건설에 끝까지 힘써줄것으로 이번 김연호목사의 부임에 큰기대를 가지고있다 홍효균목사는 43세 황해도출신으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하시고 서울신사동교회 시무목사신체 기독교장로회총회의 파견으로 재일동포구원을 위하여 오시게되었다 심중한 성격으로서 법사에 진솔하게 일하시는 소장파의 유력한 목사시다 桑名에서 삼개월간 수고하시게 되어 현재 수고하시는 김호식목사의 안내로 4월19일주일에 현지에 부임하시고첫설교를하시었다

桑名는 과거 강상우목사의 힘있는 선교활동으로 작년에 시가 270만원으로 예배처를 구입하고 교회간판을 걸고 완전히 桑名교회기초를 세워 매주일 16명 평균 모시고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옛날해방전에는 중부지방에서 몇째가는 교회가 있었든 자리라 현실착장박명준목사와 그간 임시로나 김호식목사가 힘을썼고 금번 홍효균목사를 맞이하여 桑名교회형성에 한자속 더 나가게 되고 그의 활동에 크게 기대하는동시 간곡히 기도하는바이다

총간사 전영복

—7월 여전도회 월예회를 위하여—

영혼의양식

겸손히 배우자 (마태 18:1~14)

만국박람회가 우리의 주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모습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는 크게 작은 나라는 작고 알뜰하게 모두 자기들의 멋을 드러내고 있는데 유의(留意)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고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쁘다는 말은 나올수도 없이 다채로운 각각의 특징을 보는 이들에게는 다만 새로운 감격과 즐거움뿐이었습니다 과연 주제 그대로 조화와 진보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묻는 제

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고요히 귀기울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크기를 다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겸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

므로 그 신앙과 겸손을 가장 순진한 어린이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해결될 힘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어린이 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어 파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요... 따라서 어린이 같이 계속 배우고 자라나려는 겸손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잠언1:7,하)」는 말씀대로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들은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주위의 사물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않습니다 자기같이 많은 남들은 다 적대시 하는 중에 배우지도 자라지도 못하고 퇴보와 후진성의 운명을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원근(遠近)의 수많은 이웃들을 다 나와함께 구속받은 형제의 좋은 점을 잘 보게 되고 널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소질과 성격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서로 남을 존중하며 열심히 배우면서 어찌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은 민첩하게 보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싹들은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교훈이나 지도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각없이 발하는 우리의 비방의 언동을 그들은 그대로 계승하여 자라나갑니다 「작은 자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밧줄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18:6)」고 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언행십자와 모든 생활을 바른 길로 권고 하십니다 잃은 양 한마리를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거치른 산골짜기를 찾아 헤매는 목자이상이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의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때 전력을 다 하는일이 얼마나 이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귀중한 일일지요.....

온 세계가 한자리에서 맞나는 이 제제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온전한 지혜를 풍성히 받은 하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보다 더 아담하게 가꾸며 더욱 남들을 존중하여 잘 보고 겸손히 배워가는 성실한 생활모습을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힘껏 온 누리에 빛내봅시다

X X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큰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는 저희 겨레들을 구원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삼천리 강토위에 임하소서 이 온 땅위에 거룩하신 하늘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教役者夏期研修会
開催予告

日時 1970年 7月14日~16日
場所 南紀白浜温泉 上樺
主題 70年代에 있어서의宣敎
特別講師 鈴木幸夫
(日本経済新聞論説委員)
費用 一人 壹万円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 일부를

대 여행
大旅行

★13日間、1970年11月2日~11月14日
★¥467,100—

기독교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곳을 나도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그의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낱낱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않습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 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30/TEL (991) 3756

Universal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聖 書

主を待ち望む

ルカ 12:35~40

1.今日の聖句には主人が僕たちに家の管理を任せて、婚宴に出かけた。主人は何時に帰ってくるかわからないが、帰ってくるまで家財を管理し又主人を迎える準備を常にし、真夜中であつて腰に帯を掛けて主人が帰ってくるなり主人の世話が出来、又光をともして明るくしておく人は、主人が帰ってきて彼らに給仕をして食卓の奉仕して下さるという実に光栄にみちた待遇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主イエスの最後の晩さんを思い出すのである。(マタイ26:26-29)。主は私たちの中で給仕するものとして愛の奉仕の実践をなさつた。(ヨハネ13:1-11)。即ちこの例話の中に出て来る内容は主イエスを待ち望む準備をする信仰生活をすすめている。(ガラテヤ6:9)。

2.主を待ち望む者は主人が夜中か夜明け頃かわからないと言っている。夜中や夜明けは人が眠っていて、起きている人がごく少いのである。このように救われる人も実に少いのは今日この頃だけでなく、主イエスの時代も同じよ

うであつた。ある人が主よ救われる人は少ないのですかと聞くと主イエスは狭い戸口から入れと言われた。(ルカ13:23-24)。多くの人は大勢順応である長いものにまかれる主義で生活している。罪のあるこの世で長い者にまかれるとは罪を犯すままに神を無視し神と信仰を軽蔑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ユダ1:18)。この時に神に対しては真夜中のように全く神を信ずることの出来ないこの時に私たちは信仰に目覚めて祈りを常にして(マルコ14:38)主と固く結ばれた生活をせねばならない(ロマ13:13)。

3.パウロは腰に真理の帯を掛けて悪魔に立ちむかいなさいと言つた(エペソ6:14)。ヨ

ハネは子供が真理に従つて歩んでいると聞く以上大きな喜びはないと言つて(第3ヨハネ4)。主を待ち望む者は自分か主人が任せられたこの家の管理を、主人の意志に従つて主人が喜ぶように守るべきである。私たちが生活しているこの世は主人が私たちに自分の家を管理させられているようなものである(太24:44,46)。私たちは主人が任せられたこの世での人生を神言に従つて暮さねばならない多くの人が神を信じないからとてそれに従う必要はない。私たちはむしろ少数者になつても主の再降の時に主の食卓にあづかる信仰をもつて強く生きよう。(黙020)。

—万博韓国デー—

世界の縮図万博が韓国一色に

万国博も開場して2ヶ月半最初の準備不十分も一つ一つ整備され、日本のマスコミを

始めとして全国がEXPOに溢れている。多くの批判を受けつつも、人類の調和と進歩をシンボライズしたものとして、一応その意義を肯定されてはいるが、そこはかとなき、矛盾を目に、心に感じさせられる。その最も強いものは、調和、平等とやらはらに大国と小国、先進国と後進国、尊敬と軽蔑をそのままパビリオンの大小、豪華と貧弱さに、まざまざと見せつけられ、何百万の見物人の心に肌寒さと醜さを植えつけ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価値観の問題だと言って、小さくともダイヤモンドは大きな粗石よりも何れほど貴いか、国の大小、文化の進歩後進によって独立国家の基本的価値は左右されないのとは言っても、目に映り、心に感じる感情は単純であって赤裸々なものである。そうした中で只一つ救われるのは、ナショナルデーである。その日一日だけでも片隅に見向きもされなかった小さいパビリオンがEXPOの真中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その国、その民族の存在の意義と基本的価値が大国、先進国と平等に認められ、貴ばれ深い理解により、調和が



カナダ代表として、マッキンドシュ牧師のお子達、デビット、ジャネット兄妹が参加した。

報道関係者の好意により、テレビ録画され当日の夜のNHK番組万博アワー及び民放にも、クローズアップに登場したと云う。

관서 아슈람 연수회 개최



지난5월5일6일 奈良市内에 있는 桃山荘에서 주제 「깊은 영적생활」이란 말씀을 가지고 一泊二日の 기도연수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30여명이였으나 한국서 오신 정규오목사 이환수목사 두강사를 모시고 오늘의 세계가 이와 같이 과학의 진보와 합리적인 생활설계 그리고 경제성장등등의 번영을 보여주어있으나 그것들의 주인공인 인간의 정신생활은 발전보다 후퇴하고있다 그중에도 특기 기독교자의 믿는 생활의 불은 벌써 없고 죽은 상태다정말 안으로 새로워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한다...고 강조하여 모두가 회개와 깊은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가졌다

분반기도시간은 세반으로 하여 거방내의 여러교역자가 인도하여 은혜를 나눴다 이번의 열린 기도연수회를 통하여 한가지의 현실을 보게했다 그것은 이집

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적인 은혜와 근본적자세를 주는것인데 사실은 너무나 무관심이다

그것은 물고기가 「나는 물이 없어도 살수있다」고 하는것과 같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깊은 영적생활이 필요하는 시대 말을 바꾸어서하면 비기독교적인요인으로서는 생기는 결과와 복잡한 인간관계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무저항한 태도로 인하여 신앙의 결단 노력인내 용기가 없는 생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자생활을 무신경으로 계속하는 결과가 오늘의 기독교자의 현실이 아닌가

주제와 같이 정말 깊은 영적 생활을 가지는 신자가 되여야 하겠다 오늘의 시대가 이와 같이 되면 될수록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보고자 李昌雨

齊らされる。

5月18日は、EXPOの隅隅まで太極旗一色となり、在日韓国人が競って民族衣装を身につけ、場内に溢れた先進国とも言えない、後進国とも考えられない大韓民国である。誇ることも卑下することもない、淡々とした気持ちでそのままてらうこともなく誇示することなく、民族の文化を喜び、国の存在を貴び、国家を代表して丁一権國務總理夫妻を迎え、李洛善商工長官を始め、韓国を代表する程の名士の参席のもとに、大韓民国を世界列国の一員として、堂々と、そして厳かに、しかも謙虚に美しく打ち立てた。嬉しい聖らかな程に崇高な思いに満された一日であった。或国のように強辣な侵略の歴史を綴り、今にして尙、自らの強国を誇り、経済力の大を誇示して他国への野望を「衣の下に鎧」として隠すような

ことなく、自らの自主自尊と共に他の自主自尊を真実な倫理として、テーマそのまの「より深い理解と友情」をその姿に、その思いに、その感情に満ち溢れさせた日であった。韓民族こそを傷けずして、人間として当然である生きる権利をのみ、よりどころとして深い文化を生み、営々として国土に長い長い歴史を綴って来た民族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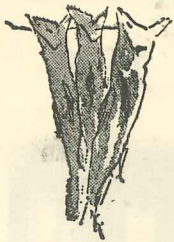
操りひろげられた舞踊、音楽、歌の一つ一つは、民族の素朴な感情と強い悲願をこめた韓民族だけが持つ、香り高い人間性を心行くまで織りなしたものである。限りなく平和な言うことのできない愛情と知性の豊かさ、こまやかさを満ち溢れさせたものである。見る人聞く人をして自国民他国民の別なく、人間情緒をゆり動かす、華やかな興深いものである。在日韓国人に(4面へつづく)

布施教会学校

万博国際子供デーに参加

去る5月5日「子供の日」を記念し、万博キリスト教会館に於いて、国際色豊かな子供デーが催された。各国を代表する教会学校生徒達が、それぞれの国語で、しかも民族衣装を身にまとい、讃美と民族のうたをもって奉仕をした韓国代表として、布施教会学校生徒8名が参加した。男女とも民族衣装に身をかため、たぶん始めて見たであろう、始めて着たであろう、そして、始めて実感したでしょう、祖国の美と誇りを力強く受けとめて、万博会場内をかつ歩したと云う。

又当日韓国パビリオンにも特別出演することが出来て、観光客は「韓国から来た少年合唱団ですか……」と問われて、困るほどだったと云う、忘れることの出来ない楽しいひとときであつた。



宣教一期を顧りみて

アンダーソン宣教師

私と妻が在日大韓基督教会の宣教師として派遣されるということを聞いたのは4年前のことでした。ある意味ではそれは昨日のように思えます。当時、私たちは在日大韓基督教会と指導者たちについて学んでおりました。それはいつも楽しいものでした。ときには排他的な経験でした。

私たちは何人かの人に特別にお礼を申し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Sam Cheh"つまり崔京植牧師。この方は、はじめに私たちがここに来る見通しをつけてくれた方です。次に呉允台博士、李仁夏博士、金桂昊牧師。この方々は私たちが東京で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間、家族に対して牧会的な配慮をしてくださしました。朴命俊牧師と申英子伝道師。この二人は私たちが名古屋に移った時に友情と勇気を与え、また、中部地方の教役者との交りを持つことに努力して下さいました。それにKCCJ(在日大韓基督教会)の人事委員会。この方たちはいつも私たちの限界に注意を払い、私たちがもっとよく働け多分、友情が少い場所を見つかるのを助けてくださいました。

これらの人々の協力と友情がなかったら、私たちは今日に到るまで残って仕事ができなかったであらうでしょう。

さて、私たちが日本で働いた最初の期間の重要な点は何であったのでしょうか？

はじめに、KCCJの働きと奉仕を広く紹介してもらいました。これは私たちが日本に着くやいなや方々の教会を急いでまわることからはじまりました。そして呉博士、李博士によって、教会とその現在の機構について語られることによって続けられました。これに加えて、時々、匿名の社員として、基督教々育と文書伝道委員会に加わる特権があり、またいろいろな機会に総会の任職員会に出席するお招きにあずかりました。これらの経験はすべて教会が生きて行く方向、また、いかに組織だて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たいするいくつかの洞察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他の"High Point"は、若い人たちとの交りで、毎年の全国修養会、それに関東と中部

の連合会に出席することでした。

このことを通して、多くの教会人と会う機会を持ちました。けれども、おもに、関東と中部地区でした。

家内と共に短い間でしたが、韓国を訪問したことは私たちに韓国人一般と日本に住んでいる韓国人を理解するのにたいへん役立ちました。私たちはそこに滞在した10日間、できるだけたくさんものを見、経験しました。そして、こんどはいつかまた韓国に行き、しばらく留まり、韓国語の勉強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在日本韓国 YMCA 総会開催

去る4月29日午後1時より韓国YMCA一階ホールにて1970年度会員総会が開催された。

会は正会員125名中50名が参加し、理事会報告、1969年度事業報告、会計報告等の報告の後、1970年度事業報告、予算案を可決した。引続き憲章を改正し、理事監事選出に移った。新たに選出された理事は呉京世、李東和、姜重求、金奉任、李永欽、金漢弼、金鳳天、金光洙、張尙宰、李小龍、金在述、俞錫濬、金郡化、金京秋、韓必信氏である。又監事には権泰岳、鄭東貴、李起春氏が選出された。

新理事、監事選出の後、会館建築問題が討議され理事会原案を満場一致で可決した後、総会は午後7時に閉会した。



多分これらの中で、一番印象深く思ったのは、第二次世界大戦後もKCCJが生え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世界のあらゆるところの教会に較べることでできない成長の時代でした。それはほんとうです。けれどもこの状態を考えてみますと、ここでは招かれざる外国人少数者、それも戦争で敗けた国で望ましくない外国宗教を広める団体

として、牧師養成のための学校もなく、牧師たちはジョン・カルヴィンからブルトマン・ハーヴェイ・コックスにわたる広く変動する神学を持って、他の神学校から来ました。教会は長崎から北海道に至るまで、細く散らされ、多くの教会は教役者がおりませんでした。そのような教会が、生き残るというのは奇蹟でしたそして、その奇蹟はイスラエル人がバビロンから帰ったのと似ていました。イスラエル人のようにそこには内的にも外的にも問題があり、そのうちいくつかはまだ、解決されないままに残っています。(つづく)

(中部地方在任)

中部地方の近況

他地方の諸教会は健在か？一人の魂も失われたり、迷うことなく変りないだろうか。当中部地方は着実な歩みを続けている。この度、浜松では会堂が与えられ、大なる恵のうちに、盛大な、恵に満ちた入堂式が行われた。聖隷病院の長谷川長老が説教をされた由。隠れた努力を、信仰の戦いを通して、なしてこれた李楨烈長老(伝道に全てを捧げて十数年たつ故伝道師と呼ばせて頂く)の喜びがどんなに大きかったかと思わずにはおれない。それと共に、浜松の社会事業の父ともいべき長谷川長老の喜びもどんなに大きかったかと思う。李楨烈伝道師が病いの時も、いろいろと陰で尽してこられた方だからである。一同、心から浜松伝道所の発展を祈っている。豊橋教会も主の恵に支えられて着実な発展を続けている。豊橋教会の金安弘牧師は日夜奉仕に勉学に

努めておられる。今後も継続して青年活動に邁進されることであろう。教会員たちは聖書的に生きようと努め、信仰一すじに生きているという感を強烈に与える。小さな教会であっても信仰に一致団結して進んでいる。岡崎教会も着実な歩みを続けている。詩人、哲学的潜在力に富む白南哲牧師は聖書と一徹に戦って十数年、白髪にその苦闘がにじみ出ている。今後も一層の発展を祈る。桑名教会は有望な教会である。名古屋教会の絶えざる祈りと援助に支えられて発展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さて、中部といえば名古屋教会を先づ上げられるであろう。それは名古屋教会の発展が中部の他の小さな教会の発展にも繋がるからである。この教会の教勢を見る度に驚かされる。礼拝出席数、青年活動、婦人会、主日学校等の働きぶりを見ると、われわれの目と頭を疑いたくなる程である。質に於ても、信仰によってキリストの闘士を作り出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このような大教会を牧してこられた朴命俊牧師の苦勞は並々ならぬものであったろうと思われる。朴牧師の下で指導を受けた者らが今でも、諸教会の柱となって、信仰生活を堅忍し続けているのを見る時、その実によって見分けると云われた主イエス・キリストの言を思い出さざるを得ない。これからも、申英子伝道師の内助の功と共に、より一層の発展を祈って止まない。大垣教会は牧者のない中

にも、徐長老の熱き祈りに支えられて信仰の家族が細々ながらも健闘を続けている。どこの教会も牧者が居る時は、この恵を悟らず、何かにつけて、不足を感じるのであるが、いざ居なくなると見ると、これ以上の淋しさはないということに身に染みてくるのである。牧者と教会とは夫婦の関係と同じではなからうか。神の恵が溢れるまでになる日の来ることを祈り、努めている。中部の諸活動を見ると、4月3,4,5日夜、岐阜市町村会館で、市内諸教会の大伝道集会が開かれ、大なる恵みのうちに終わり、そこで得た資金を基にして、クリスマスには申鉉錫先生を迎えて市民音楽の夕べを市民会館で開くことになる。中部青年会の活動はとても頼もしい。中部の聖書研究(家庭教育、総会憲法、入管法)も恵みのうちに無事に終わる。《主よ、全て感謝であります》

関連青年会総会

会長に金勇聖君

関西連合青年会は6月21日午後3時から大阪教会で定期総会がもたれた。

昨年度の活動報告が行われたのち、新年度の役員改選があり、次のように選ばれた。

▶会長 金勇聖(大阪)▶副会長 丁基隆(平野)▶書記 李恵子(平野)▶副書記 李静淑(西成)▶会計 金梅里子(北部)▶副会計 金福順(布施)▶伝道部長 李恩掄(堺)▶出版部長 洪勝彦(枚岡)▶文化部長 辛基一(堺)▶音楽部長 金永寛(武庫川)

(3面よりつづく)

祖国を故郷を、これ程、懐かしめ、慕わしめた日はなかったであらう、日本の隅に、はきよせられたように貧しくささやかに細々と生きて来た韓国人が、胸さける程に韓国人としての誇りと喜びと満された思いに溢れた日であった。

民族の歴史を言わず、語らず、EXPOを訪う人のすべてに強烈に印象づけた韓国デーであった。世界に韓国をより深く理解させ、熱い友情の手をさしのべさせる一日であった。それが只一日だけに終らないよう、これからの韓国人の生き方に深い強い祈りを捧げたい。望むらくは、古い韓国のみでなく、今日の韓国を歌に、舞踊にしてEXPOに持ち出したかった。6・25動乱より立ち上った若い韓国を、今日の韓国文化を築き上げた基督教を、大合唱によって、舞踊によって。